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의 돌담

혼무라의 페리 항구에서 약 2~3 분 걸으면 나오는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의 중심가에는 연대를 알 수 없는 돌담이 늘어서 있습니다. 이 돌들은 균일하게 자른 것들이 아니라 둥그스름하며 바다에서 채집한 돌로서, 이들을 높이 쌓아올린 벽은 풍격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집집마다 집 앞에 쌓은 이 벽들은 침입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동시에 태풍의 바람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. 일본 남서쪽의 섬들에서는 돌담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데,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의 돌담은 오키나와처럼 더 남쪽에 있는 섬들의 돌담보다 높고 돌도 크다고 합니다. 안타깝게도 최근 학자들이 지적할 때까지 이 돌담들의 독자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 보존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